

영암 대불산단, 기업하기 좋은 ‘행복산단’ 탈바꿈

정부 ‘혁신대상단지’ 선정 5년간 1463억 투입

조선해양 특화산단·외국인 마을 조성 등 추진

전남 서남권 생산액의 40%를 차지하는 영암 대불 국가산업단지가 정부 지원을 받아 첨단 산업단지화 기업하기 좋은 ‘행복산단’으로 탈바꿈한다.

지난 1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무역투자 진흥회의에서

대불산단과 경남 창원산단 등이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의 ‘혁신(리모델링) 대상단지’로 최종 선정돼 향후 5년간 1463억 원을 투입하게 된다. 정부의 혁신산업단지 구축사업은 관계 부처의 집중 지원을 통해 노후화된

산단을 창의·혁신 공간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영암군은 지난 11월 전남도와 산업단지관리공단 대불 지사, 대불산단 경영자협의회 등 7개 기관 17명으로 대불산단 혁신사업 추진단을 구성했다. 추진단은 혁신 산단에 필요한 기술고도화 및 업종의 다각화 추진사업, 조선해양 특화산단으로의 리모델링 사업 등 조선해양산업의 자생적 산업생태계 구성을 위한 계

획을 수립했다.

대불산단의 혁신사업 내용을 보면 ‘공간조성 사업’으로 ▲산단인프라 개선사업 ▲뿌리산업 특화단지 ▲임대형 지식산업 센터 ▲외국인 마을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또 ‘혁신 역량사업’으로 ▲산·학 융합지구 연구기반 구축 ▲종합 국제 비즈니스센터 건립 사업을 벌인다. ‘환경 개선사업’으로 ▲근로자 종합복지관 사업 ▲클린사업장 사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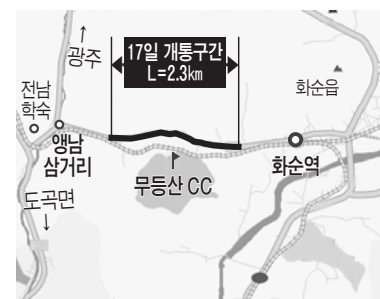
산단형 직장어린이집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근로자 복지센터 ▲산단단지 문화재생 사업 ▲문화행사 개최·작은 도서관 운영 등 모두 16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전남도와 영암군, 대불산단 경영자협의회, 목포대, 지역 국회의원은 오는 18일 영암 현대호텔에서 ‘대불산단 창의·혁신 정책포럼’ 창립 총회 및 포럼을 개최한다.

영암=대성수기자 dss@kwangju.co.kr

영남~화순 지방도 17일 부분 개통

도덕교~용곡교 2.33km



전남도는 13일 “영남~화순간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공사” 중 도덕교~용곡교 구간 2.33km를 오는 17일 오전 11시부터 부분 개통한다”고 밝혔다.

영남~화순 간 국가지원지방도 총연장 7.73km, 4차로 확·포장공사는 지난 2007년 착공해 올 연말까지 1100억원을 투입해 완료할 계획이다.

영남~화순 구간은 그동안 선형이 불량하고 굴곡 부분이 많아 차량이 운전자에게 큰 불편을 줬으며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했다. 전남 확충에서 담재터널을 지나 용곡교터널 구간을 우선 개통함으로써 교통거리 단축으로 물류 수송비용 절감

과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우선 해결될 전망이다.

특히 나주시~남평읍~화순읍, 전남학술~화순읍, 도곡원천단지~화순읍 등 지역 내 교통 편의로 이 도로를 이용하는 지역 주민과 인근은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했다. 전남 확충에서 담재터널을 지나 용곡교터널 구간을 우선 개통함으로써 교통거리 단축으로 물류 수송비용 절감

영남=대성수기자 dss@kwangju.co.kr

“청동기 시대로 시간여행 떠나요” 화순·나주시 고인돌 체험행사·전시회

‘청동기시대로 시간여행을 떠나 보자!’

화순과 나주에서 고인돌을 주제로 한 이색 체험행사와 전시회가 마련됐다.

화순 고인돌 체험행사 다채= 화순군은 3월부터 오는 11월까지 도곡면 효산리 ‘고인돌 선사마을’에서 학교단위 고인돌 문화학교와 가족단위 고인돌 시간여행, 1박2일 고인돌 캠프를 운영한다. 22일은 올해 첫 번째 행사로 ‘고인돌 마을의 제례의식’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선사체험은 매년 4000명 이상의 개인과 단체 등이 참여할 정도로 호응을 얻고 있다.

5~6월에는 고인돌 유적지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설을 담당하게 될 ‘고인돌 교육사’ 양성 교육이 실시된다. 9~10월에는 10주 과정으로 고인돌유적 주변의 지역민을 대상으로 고인돌 지역주민 아카데미가 개설된다. 문의(동북아 지식

연구원 061-370-8831)

나주박물관 고인돌 사진전= 국립 나주박물관은 2014년도 첫 번째 특별전시로 ‘사진과 유물로 보는 남도의 고인돌’을 4월 6일까지 연다.

이번 전시회는 ▲우리 건관 사진으로 보는 고인돌 ▲고인돌의 발굴 조사 ▲우리 곁의 고인돌 ▲다른 나라의 고인돌로 구성됐다.

또 일제강점기와 1990년대 촬영된 고인돌 사진 60여점과 최근 전

남도 지역에서 조사된 고인돌 출토 유물 100여점도 같이 전시된다. 특히 중앙박물관에 소장중인 유리건관 사진 중에서 1914년과 1927년에 촬영된 전남 지역의 고인돌 사진이 공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이 밖에도 나주시 운곡동·월양리, 여수시 월내동 삼촌, 보성군 용동 고인돌에서 새롭게 출토된 청동검과 간돌검, 토기 등도 선을 보이고 있다.

화순=조성수기자 css@/나주=손영철기자 ycsn@



지자체 열린 선사시대 고인돌만들기 체험 (화순군 제공)

나주경찰-교통안전공단, 사고예방 업무협약

나주경찰서(서장 이윤진)는 지난 12일 교통안전공단 호남지역본부(본부장 조윤구)와 교통사고 예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노인을 비롯해 어린이, 장애인 등 교통 약자를 보호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강화 및 지역사회의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나주경찰은 65

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의 역량을 집중한다. 또 공단은 교통안전 예방을 위한 홍보용품과 각종 교육 활동에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나주경찰은 지난 10일 노안면 화 및 지역사회의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나주경찰은 65



전북



순창 팔덕면에 공공승마장 들어선다

말산업 공모 선정 국비 20억원 확보

오는 2015년 순창군 팔덕면 용산리 일원에 공공 승마장이 들어선다.

순창군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의 ‘말산업 육성’ 공모사업에 순창군 공공 승마장 조성사업이 최종 선정돼 20억원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군은 지난 2011년부터 공공 승마장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팔덕면 용산리 소재 군부대 부지를 사업장 위치로 선정해 사업타당

남원·임실·순창, ‘행복생활권 사업’ 추진

3개 시·군 업무협약... 생활권 TF 구성 힐링드라마마을 활성화 등 총 30건 발굴

남원시와 임실·순창군이 ‘행복생활권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남원시와 임실·순창군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특화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으로 ▲선도사업 3건 ▲연계협력사업 3건 ▲시·군 단독사업 24건 등 총 30건의 사업을 발굴,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 제출하고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남원시와 임실·순창군은 생활권의 특화된 사업발굴을 위해 최근 생활권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 전북도와 전북도 발전연구원 등과 생활권 TF(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주민생활밀착형 사업발굴에 집중했다.

발굴사업 가운데 ‘생활권 선도사업’은 농촌체험마을내 유·무형 대표자원을 상호연계 활용해 체험·휴양형 패키지 상품개발과 공동마케팅으로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힐링드라마마을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농번기 부족한 농업 노동력의 원만한 공급을 위해 농촌 일자리 DB(데이터베이스) 구축, 안전교육, 안전보험료·수송비 지원 등 효율적인 인력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도·농 협력 농업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한다.

도시지역(남원시)의 예술강사와 전문가(숙련동호인)가 생활권내 농촌지역을 찾아가는 배달 강좌를 진행, 문화격차를 해소하는 ‘도시농

재(都師農弟=도시선생-농촌제자) 행복배달’ 등 3건의 사업을 우선 발굴했다.

‘생활권 연계 협력사업’은 발효농식품 신(新) 6차산업 벨리 광, 종합형 스포츠클럽 육성, 남원 시립 중앙도서관 건립 등이 포함됐다.

‘시·군 단독사업’은 주민 불편 해소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마을 기업육성사업 등 시·군별로 주민 생활과 밀착되는 실질한 과제위주로 발굴했다.

앞으로 이들 3개 지자체는 공모 선정을 위해 부처별 사업설명 등 사업 선점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생활권 행정협의회 발족 ▲생활권 발전 계획(5개년) 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등 생활권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남원=백성기자 bs8787@/순창=이동희기자 dhlee@

전주, 민간 위탁시설·출연기관 감독 강화

전주시는 투명한 회계관리를 위해 모든 민간 위탁시설과 출연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이들 시설·기관의 보조금이나 사업비가 부당하게 사용되는 사례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민간위탁 시설 평가때 위탁금 관련 평가비중을 높이고, 회계 문제가 발생하면 위탁금을 회수하는 한편 재위탁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전주·부안=김철수기자 knews@



응급처치 이렇게 하세요

정읍시보건소는 지난 12일 북면 제2공단 사업장을 방문해 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kwangju.co.kr

단신

전주시보건소, 청소년 흡연·음주예방 교육

전주시 보건소(소장 김경숙)가 개학을 맞아 ‘1318’(13~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흡연·음주 예방 및 식생활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예방교육은 보건소 금연·음주·영양 상담사가 신청학교를 방문해 하루 1~2학년씩 실시하게 된다. 2012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중·고교생 흡연율은 11.

4%, 음주율은 19.4%로 나타났다. 전주시 보건소 관계자는 “지난해에 43개교 중 초·고등학교 7742여명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해 호응을 얻었다”며 “올해도 예방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술·담배에 대한 호기심을 갖지 않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전주·부안=김철수기자 knews@

정읍 지역의 도서관, ‘스탬프 왕’ 뽐낸다

정읍 지역의 도서관은 관내 초등학생들에게 독서의 즐거움을 주기 위해 ‘2014 스탬프왕’을 뽑는다.

‘스탬프 왕’이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도서관 홍보 리플릿을 꾸준치럽 활용해 팜파닥기 지도를 완성하며, ▲이야기방식 참여하기 ▲친구들과 도서관에서 찰카 ▲내가 읽고 싶은

책 30권 읽기 ▲기적의도서관 일일 자원봉사 등 테마별 8개 미션을 완수한 어린이 가운데 우수자를 스탬프왕으로 선발하는 문화이벤트이다. 참여학생은 8월까지 8가지 미션을 완수한 후 안내데스크에서 도서관 홍보 리플릿에 미션완수 인증 스탬프를 받으면 된다./정읍=박기섭기자 parkks@

남원, 불법 주정차 위반 문자 알림서비스

남원시가 원활한 교통 흐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11일부터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 휴대전화 문자알림 서비스를 시행했다.

문자 알림 서비스는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에 차량이 진입하면 CCTV와 이동형 단속차량에서 차량번호를 인식해 운전자에게 휴대폰으로 단속

경고 메시지를 전송한다. 불법 주·정차 사전알림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남원시 홈페이지 배너창립 서비스를 시행했다. 문자 알림 서비스는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에 차량이 진입하면 CCTV와 이동형 단속차량에서 차량번호를 인식해 운전자에게 휴대폰으로 단속

고창, 동리 신재효 선생 유품 도록 펴내

고창군은 조선 후기 판소리 여섯마당 중 집대성한 동리 신재효(1812~1884) 선생의 유품 도록을 펴냈다. 도록에는 신재효 선생이 동리정사에서 집대성한 판소리 여섯마당 다양한 사설본을 비롯해 시, 간찰 등 각종 자료들이 실렸다.

고창군 관계자는 “신재효 선생 연

구의 중요자료로 활용됨은 물론 고창 판소리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데 큰 몫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창 출신인 신재효 선생은 춘향가·심청가·적벽가·변강쇠가·박타령·토별가 등 판소리 여섯마당을 집대성했다. /고창=윤창영기자 cy0370@